

Robert Vannoy 박사 , 구약 역사, 강의 21

© 2012, Robert Vannoy 박사 및 Ted Hildebrandt

족장 연대기 계속, Abraham

족장시대의 연대기에 대한 검토

우리는 지난 세션에서 가부장제 시대의 연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연대기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를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족장 시대의 날짜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6장 1절이었습니다. 480년을 문자적인 연도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도식적인 숫자로 받아들이든, 이는 출애굽의 초기와 후기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음을 말하는 출애굽기 12:40이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다"고 말하는 변형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애굽에서 215년, 가나안에서 215년을 지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논의한 요점이었습니다. 족장의 나이는 130세, 60세, 25세이므로 215세로 나누어야 합니다. 130세는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의 나이입니다. 60년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의 60년입니다. 25년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25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더하면 430의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430년의 증거, 창세기 15장과 사도행전 7장

이제 우리가 그때 하고 있던 일은 430년, 창세기 15장과 사도행전 7장의 증거와 인구 증가를 요인으로 왕의 증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215년 동안의 증거를 보여 주었는데, 주된 논거는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약속하신 지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 이제 나는 시간이 끝날 무렵에 이것이 이집트에서의 215년 체류와 가나안에서의 215년 체류를 확립한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약속이 직전에 야곱에게 재확인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창세기 46:3 과 35:9을 참조했습니다. 이것이 이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17에 대해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한 가지 다른 논평을 언급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KA Kitchen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바로 그 책입니다. *고대 동양과 구약의* 53페이지, 각주 97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참고문헌 1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키친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바울은 한 가지 점을

확증하고자 하였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는 지 오랜 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사건들 사이의 실제 간격을 힘들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 내에 포함된 430년 동안의 잘 알려진 한 수치를 인용함으로써 간단하고 예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읽을 때입니다. “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하느니라. ” 그는 430년이 그보다 더 큰 간격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의 잘 알려진 시간 블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숫자의 모양을 해석하는 Kitchen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전체 기간이 430년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견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진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430년에 대한 칠십인역 해석을 이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불필요한 가정입니다. 현대 논평은 아마도 생각의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키친은 바울이 칠십인역을 따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430년이라는 더 큰 간격 내에서 잘 알려진 한 기간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설명이다. 내 생각에 그는 바울이 자신이 지지하는 70인역을 따르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70인역을 인용하고 있고 70인역은 이집트의 기간이 215
 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 모든 창세기 구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 400년이 언급되어 있는데, 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16과 출애굽기 1장. 6:16-20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물론 215년 관점 을 지지하는 강력한
 본문입니다 .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은 그러한 견해를 지지합니다. 나는
 이미 70인역의 낭독에 대해 논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우거한 기간은 430년이라.” 430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주장은
 창세기 15:16과 출애굽기 6:16-20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창세기 15장 16
 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에는 “4대째에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4대째. 출애굽기 6장 16~20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탓과 므 라리 요 . 레위는 137세를 살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종족별로 립니 와 시므이다. 고탓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웃시엘 이더라 . 고탓은 133세를 살았습니다. 므라리 의
 아들들은 마흘리 와 무시 였습니다 .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레위의
 종족들이었습니다.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하여 그에게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습니다 .” 이제 그것은

족보입니다. 추적해 보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6절에서 레위에서 고핫으로, 고핫에서 아므람으로, 아므람에서 모세로 이동합니다. 물론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고, 게르손의 아들은 립니 와 시므이이고,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 와 무시 입니다 . 아므람의 아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것들은 출애굽기 6:16-20에 나오는 순서대로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4대를 말하는 창세기 14장과 출애굽기 6장에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의 4대가 있는데, 400년보다 215년이 더 적합해 보이는 것을 연결하느냐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보통 100년이 아니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중 하나는 창세기 15장에서도 보통 4대를 말하지 않고 400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의 *d'or* 또는 "세대"는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대로 약 100년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400년이 되는 셈이다.

이제 키친(Kitchen)도 이 문제를 논하며 20절에 “아므람이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장가들고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고 말합니다 . 그는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요게벳이 아므람, 아론, 모세에게 한 진술은 직계 자손임을 증명하지 못한다” 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족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언어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6:16-20은 완전한 족보가 아니라 오직 레위 지파만 제시합니다.

고핫 씨족; 아므람 족속은 요게벳에게서 난 모세와 아론의 족속이니라”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실제 부모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나온
 족속은 아므람과 요게벳 족속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키친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의 직계 부모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제안했을 때
 상당히 확고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모세가 갈대 사이에
 숨겨져 있고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이해임을 꽤 잘 확증해 주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아므람 족속 , 즉 이 아므람의 후손 집단은 출애굽 당시 이미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수기 3장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 고핫 에게는
 아므람 족속 과 이스할 족속 과 헤브론 족속 과 웃시엘 족속이 속하였으니
 이들은 고핫 족속들이었습니다. ” 이것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모든
 하강입니다. “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 출애굽 당시에는 8,600명이므로
 한 세대 이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인구 조사
 수치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16절은 4대를 말하고 출애굽기 6장은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로 되어 있으므로 4대가 더 적합하고 215년이 더
 적합하다고 간단히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15를 확립하기 위한

주장으로요. 그것은 그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Vannoy의 결론: 430년

그러므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430년이라는 마소라 본문을 고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구절을 키친이 하는 방식으로 더 넓은 범위 내에서 한 주요 인물을 인용하거나 야곱에게 재확인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지적함으로써 그 율법이 그로부터 430년 후에 있었던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다양한 각도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엔 430에 대한 주장은 주로 창세기 15:13, 15:16, 사도행전 7:6-7과 인구 증가 때문인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는 성경적 자료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의 480년 사건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430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논의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논증 셋째, 실제로는 c. 2 아래. “ 창세기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동시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경 외 증거가 없습니다. ” 이제 그곳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나중에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14장입니다. 왜냐하면 14장에는 와서 롯을 공격하고 포로로 잡는 왕들의 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추적하며, 창세기 14장에 언급된 여러 나라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외의 증거를 통해 “오, 이런 저런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메소포타미아 기록이나 다른 것을 통해 그와 연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키친은 창세기 14장이 왕들의 연합과 함께 기원전 2000년부터 1750년까지 메소포타미아의 정치적 패턴에 부합하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기원전 2000년부터 175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작은 도시 국가 왕들의 동맹을 맺은 메소포타미아의 정치적 패턴에 부합하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에서 1750년 사이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점은 연대기의 어려움은 이 두 가지 요소에 더해 성경 외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실제로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초기/후기 날짜

3. 개요에. 다음은 우리가 이미 논의했지만 단지 검토를 위한 변수입니다. 변수는 출애굽 초기/후기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의 늦은 날짜를 기원전 1290년으로 잡으면 출애굽의 이른 날짜는 기원전 1446년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에 대해 마소라

본문을 따르는지 아니면 70인역을 따르는지 여부입니다 . 마소라 본문을 따르면 1446년에 645년을 더한 것이 됩니다. 430 더하기 215는 645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645를 더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기원전 2091년이 됩니다. 70인역을 따르면 기원전 1876년이 나옵니다. 이는 이집트의 215년, 가나안의 215년에 단지 430년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늦은 날짜, 보통 1290년경 으로 시작한다면 때로는 1260년 또는 그 기간 어딘가일 수도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 전통을 따르면 645를 더하면 기원전 1935년이 되고 칠십인역을 읽으면 기원전 1720년이 됩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변수에 따라 범위는 궁극적으로 기원전 2091년부터 기원전 1720년까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슐츠가 족장들의 연대기에 대한 논의의 시작 부분에서 그 일이 100%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비록 그는 지금은 더 이른 연대를 선호하지만 나도 역시 선호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증거의 중요성은 출애굽 초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고 그 이유는 물론 마소라 본문 읽기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D. 아브라함 1. 역사적 인물로서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지리적 여정 이제 개요인 D.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족장시대를 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치하에서 1. “역사적 인물로서의 아브라함.” 먼저

역사적 인물인 아브라함을 논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논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역사적 인물인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지리적 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란에 와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칼데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의 이 부분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칼데아 우르를 레온 울리(Leon Wooley)가 발굴한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우르로 이해합니다. 당신은 피네간(Finegan)에서 남부 우르(Ur) 에 관해 읽었습니다 . 우르의 세 번째 왕조는 기원전 2070년부터 1960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아브라함 시대가 맞습니다. 우르의 세 번째 왕조는 신수메르 시대였으며, Finegan은 39페이지 이후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고 창세기 11장 31절에서 “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고 읽습니다. 이제 우르는 여기 아래에 있고 바빌론을 지나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고 마리를 지나 북쪽에 있는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이 새로운 제안된 위치에 대해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제 칼데아 우르가 하란 북동쪽에 있는 북부 우르를 가리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 집의 친척을 떠나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고 12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12:6에서 다메섹을 지나 세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는 “거기서 벰엘 동편 산으로 옮기셨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벰엘과 아이는 세겜에서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서편은 벰엘이요 동편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그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다음 9절에서 “그가 더 남쪽에 있는 남방으로 가다가”, 10절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더니”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여행을 떠나 벰엘에 이르니 그곳은 벰엘과 아이 사이 곧 그의 시작지이니라. 그리고 18절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이집트,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그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장소는 세겜, 아이, 벰엘,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 이제 꽤 긴 여정이군요. 오늘날에도 현대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 창세기 14 장 1.

현재 부유한 아브라함 L. 시트의 “역사적 인물인 아브라함” 아래에 창세기 14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주목할 만한 장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족장 부분의 군사 활동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아브라함은 다소 유목민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난한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당나귀를 타고 길을 따라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매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풍부하였더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논쟁에 이르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 떼와 양 떼가 많은 것 같았고 그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가축을 키우는 부유한 사업가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인이 많았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과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갔더라. ” “하란에서 얻은 영혼들” 은 의심할 바 없이 종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하인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종이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바 없이 목자로 섬겼지만 그 종들은 필요하다면 군사적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왕 연합의 공격을 받고 롯이 납치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다 함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더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318명의 하인들의 수는 분명히 싸움 훈련을 받았고 롯을 구출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브라함을 14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2. 창세기 14장 - 우리에게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의 두 번째로 놀랍고 다른 점은 많은 왕들의 이름과 그들이 다스린 곳, 그리고 전투가 많이 벌어진 장소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 이 때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 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세메벨 과 싸우니라” 고 시작합니다. 스보임 왕 과 벨라 곧 소알 왕이니라 . 이 나중 왕들은 모두 싯딤 골짜기 (염해)에서 연합하였다. 그들은 십이년 동안 그돌라오멜 에게 복종하다가 제십삼년에 배반하였더라.

제십사년에 그돌라오멜 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가서 아스드롯 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카르나임 , 함의 수스 족속 , 사웨 의 에임 족속 기랴다임 ” 등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항상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곳의 첫 번째 사람인 시날의 왕 아므라벨 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함무라비와 동일시하려고 했습니다. 함무라비라는 이름과 암라펠이라는 이름 사이에는 약간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 시날은 바벨론인 것 같으므로 그런 점에서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무라비의 연대에 대한 최근의 증거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무라비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1700년으로 꽤 확고합니다. 제 말은 기원전 1728년에서 1686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 기원전 1700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연대 측정이 이루어진 방식은 함무라비와 짐리 림 의 서신이 있었던 마리 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 마리의 왕. 함무라비는 결국 짐리 림 (Zimri Lim)을 물리쳤지만 함무라비가 그보다 앞섰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가 기원전 1700년경이라는 것이 꽤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출애굽의 늦은 연대를 취하지 않는 한, 기원전 1700년은 아브라함에게는 늦은 연대일 것입니다. E. 스파이저의 창세기 앵커 성경 주석 (*Genesis Anchor Bible Commentary*)에서 그는 107페이지에서 아므라펠에 대해 논하며 “언어학적으로 아므라펠과 함무라비 이름을 연관시킬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Spieser는 Amraphel의 마지막 “L”이 함무라비의 Y(마지막 L과 Y)에 대한 오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기 알레프는 ‘*ayin*’에 대한 실수이며 Amraphel에는 *알레프*가 있고 Hammaruabi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아인*. *Aleph*와 ‘*ayin*’은 우리에게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리지만, 일부 언어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Spieser가 지적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두 이름을 연결하는 사례를 실제로 잘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 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므라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의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고고학적 발견의 단편적인 성격에 대한 전체 사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그러한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장입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이러한 에블라 발견과 같은 누군가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러한 사람과 장소에 관한 태블릿을 생각해 낼 것입니다.

에블라 서판에서 초기 보고 중 하나는 창세기 14장에 언급된 다섯

도시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다섯 도시만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언급된 순서와 정확히 같은 순서였습니다. ,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David Noel Freedman)이라는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아 족장 시대를 에블라 서판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족장 시대를 훨씬 이전인 2300년경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에블라 서판에 다섯 개의 이름이 같은 순서로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 기초한 일종의 급진적인 제안입니다. 그 텍스트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섯 가지 이름과 그 순서입니다. 그것은 태블릿에 대한 정보나 접근 권한을 갖고 있던 이들 중 한 사람의 강의 등에서 얻은 정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서판에 접근한 다른 사람 중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로 일부 상징을 잘못 읽었으며 이 도시들이 같은 순서로 명명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잊어버렸지만 현시점에서 그 모든 문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얻을 수 없고 시리아 정부와 다소 정치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블라 서판에는 이러한 도시 중 일부가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돔이 있습니다.

관습은 상황에 따른 증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함무라비 법에 반영되지만 특히 노예 입양, 결혼권, 상속권과 같은 누지 문서에 반영된 사상의 종류는 매우 우리가 가부장적 서사에 반영되어 있는 관습과 유사하지만 누지는 그 이후인 기원전 1400~1500년 이후이므로 정황적 증거일

뿐 많은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이라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습은 200년, 300년, 심지어 500년이 지나도 그다지 변하지 않는 전통적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돌라오멜은 여기서 자주 이야기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 이름이 실제로 엘람 사람, 즉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우리가 엘람 본문에서 비슷한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것은 아니지만 그 첫 번째 부분인 게돌(Gedor) 또는 그돌(Chedor) 은 “종” 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 라오마르 ” 는 엘람의 여신 “ 라오메르 ” 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 이 여신의 하인이며 이름의 의미이며 초기 엘람어 텍스트에 대해 알려진 것과 일치합니다.

318 하인 토론

자주 질문하는 318명의 하인들의 규모 문제를 논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 나는 그 일이 언젠가 나중에 나온 아마르나 편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원전 1400년경에 가나안 도시 국가 왕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낸 편지는 아마르나 편지 중 일부에 아주 작은 규모의 군대 우발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크기는 이것과 매우 비슷할 것입니다. 이전에 Gunke1이 그것이 우스꽝스럽거나 그와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내용을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단지 318명으로 구성된 세계 정복 군대가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맥락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집트 제국, 메소포타미아 제국, 또는 나중에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같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도시 국가의 왕들이었으며 아마도 가나안을 통해 약탈 여행을 하여 다른 작은 마을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318명의 남자는 상당한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은 여전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군사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군대의 규모와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일치한다고 말합니다.

C. 아브라함과 블레셋 사람들 - 시대착오적인가?

이제 CB는 “창세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C.는 “아브라함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질문은 창세기 21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이같이 언약을 세웠으나 그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리고 34절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 동안 우거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21장의 결론에는 우물 사용을

놓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논쟁이 있으며,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당신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대착오란 무엇인가?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당시에는 부조화한 것이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위협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던 나중에 누군가가 기록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이 없었으니 시대착오적이다. 일반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BC 2000년경)보다 한참 뒤인 기원전 1200년경까지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도착은 대개 격퇴된 바다 민족의 이집트 공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타에서 왔고 지중해에서 와서 이집트를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 남해안에 정착하여 다윗과 사울 시대쯤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평가들은 이 이야기가 나중에 기록되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난 수업 시간이나 그 전 수업 시간에 John Bright의 책 *The History of Israel* 3 판 을 가져왔습니다. 존 브라이트(John Bright)는 그 책의 82페이지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시대착오적이며 “이 기간 내내 에게 해 땅과 접촉이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훨씬 늦게 도착했다” 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노트 12페이지에 Joseph Free, *Archeology and Bible History* 의 답변이 있습니다. Free의 책 65-66페이지에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Joseph Free는 수년 동안 Wheaton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에서 많은 고고학 작업을 했으며 실제로 도단 텔이 위치한 땅을 직접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나 그의 가족, 재단 또는 도단 텔을 소유한 모든 것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발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Wheaton College에는 Dothan의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성경과 고고학 에 관해 좋은 안내서인 이 책을 썼습니다 . 그는 6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2000년에 블레셋 사람들과 거래했다는 이 언급이 약 1200년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일의 Burrows는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보았다’ 고 말했습니다. 1200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초기 철기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이르렀습니다. 이만큼 늦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두 사람 모두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 왕과 거래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Burrows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편리하고 무해한 시대착오적이라고 설명될 수 있으며 ‘어쨌든 우리가 직면한 실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실수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Free의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문제가 있고 심지어 많은 경우 직접적인 모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Free는 “실제로 모순은 없습니다. 모든 주장은 침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원전 2000년에 팔레스타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이지 않은 고고학적 증거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기에 팔레스타인에 있었고, 에게해에서 온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숫자가 약 1200. 이 마지막 유입은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 입증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초기 블레셋 사람들의 고고학적 증거를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어쨌든, 성경 구절에 대한 다른 많은 확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블레셋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때 침묵 속에서 논증을 강요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 진술을 용의자로 결론짓는 것에 대해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종류의 예입니다. 우리가 기원전 2000년 가나안 남부 해안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고고학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열려 있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그러한 종류의 고고학적 확증이 없다는 이유로 성서 자료가 의심스럽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나 블레셋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두렵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이 암시하는 바는 출애굽 당시 그 해안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의 초기 날짜를 기원전 1400년쯤으로 잡는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남부 가나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기원전 1200년경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단편적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실제로 사례를 확립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해안 지역에서 그들은 약 1200년경에 점령의 증거를 찾았지만 그 이전에는 점령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업인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초기 블레셋 정착지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어디를 파야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구축한 장기 사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면 사이트 식별이 매우 쉽지만 장기 사이트가 없으면 해당 사이트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건 내일 가져가겠습니다.

마들렌 베르너(Madeleine Berner)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가 다시 해설함